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대림산업(주)

지난 2004년은 신고리 원자력 1·2호기 및 신월성 원자력 1·2호기 착공 지역,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발주 지역과 원전수거물센터 부지 선정 표류, KEDO 경수로 공사 중단 등으로 원자력 산업계는 실로 가장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 발전 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이라 보지만 그 시류의 중심에 서서 격랑을 맞서야 하는 원자력업계에게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자 안타까운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타협과 화합 속에 원자력에 대한 원만한 사회적 수용으로 원자력산업 전반이 제2의 도약으로 활기를 떨 수 있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

건설업계 선도 역량 배양

대림산업(주)는 2004년, 공공 부문에서는 동종 타사에 비해 팔목할 만한 성적을 내었고,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 주식 시장에서 연중 내내 업종 대표주로서 최고의 주가를 유지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

당사가 이러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대외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임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구조 조정과 경영 내실화에 매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고, 지속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를 통해 내실 위주의 경영을 추진함은 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 운영과 프로젝트별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조직 역량을 극대화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성숙해진 노사 관계로 임직원 모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경

영 목표 달성을 매진해온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과거의 껌질을 깨뜨리는 각고의 노력으로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이루는 선구자적 기업이 될 것이다.

최근 수 년간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으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주지하다시피 2005년도 경제 전망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 금리 인상과 미국의 약달러 정책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내수 침체, 국제 원자재 가의 고공 행진, 각종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성장과 경기 회복에 대한 시계가 불투명한 현실이다.

건설 경기 역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와 내수 부진으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임금 등 원가 상승 악재가 예상되고 있어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영 환경 속에서 당사는



신고리 1,2호기 조감도. 대림산업(주)는 신고리 1,2호기의 착공에 대비, 시공 준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착공 동시에 부지 정비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건설업계 선도 역량 배양' 이란 새 해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다.

1. 가치 중시 경영

새해에도 대림은 가치 중시 경영을 최고의 신조로 삼아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에 성장 가능한 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사업 가치를 제고하고, Shared Service를 통한 건설 계열 3사의 가치 중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부문의 전략 분야의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 지향적인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협력업체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최고의 품질을 확보해 나가고, 연구 인력 및 연구 시설에 집중 투자를 하는 한편, IT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업무 효용성을 극대화하겠다.

2. 윤리 경영

또한 대림의 기본 덕목인 정도 경영을 앞장서 실천하여 사회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

대림 경영 철학의 근간인 공개 경영을 기반으로 한 윤리 경영 정착을 위해 지난해 기울인 관심과 노력이 올해에는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며, 아울러 윤리 경영에 입각한 변화와 혁신 추구라는 선진 기업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3. 지식 경영

대림은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로 보고 이런 경영 환경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을 통해 건설 경험/지식/노하우를 수집·집대성하여 공유하였고, 지식 경영을 기반으로 한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사/자금/회계/노무/인사 등 전 분야의 업무 흐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식 경영이 정착 단계에 올라선 올해부터는 학습 조직과 조직 지식화로 운영의 폭을 넓혀 지식 경영 체계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초고속 정보 사회에 발맞추어온 대림은 체계화된 지식 창고 및 경영 관리 시스템을 근간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앞선 미래 예측과 신속한 대처로써 세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

새해 원자력 사업과 계획

플랜트 건설 산업을 주도해온 대림은 영광 원자력 5·6호기 수주를 시발점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대림 특유의 정도를 견는 성실 시공으로 2003년 성공적으로 준공함에 따라 원전 건설 실적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2003년에는 21세기 최초로 발주된 신고리 1·2호기의 입찰에 참여하

여 2003년 6월 13일 주설비 공사 계약을 함으로써 원자력 시공 업체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다.

1. 신고리 1,2호기 건설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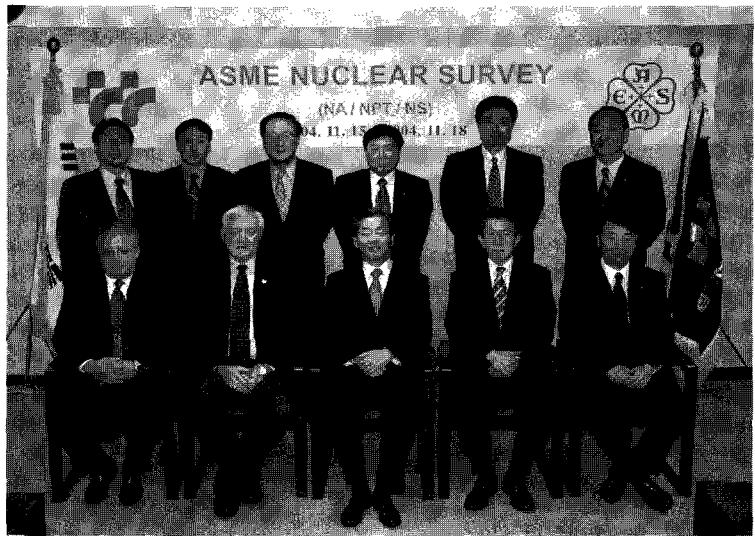
대림은 방대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e-z Doc portal(프로젝트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문서의 저장 및 공유, 활용과 협업을 통한 사업 관리 방침)을 신고리 1,2호기 사업 초기부터 적용,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전 시공 경력 직원의 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내외의 원자력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 특급 기술자로 시공 준비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신규 부지의 초기 토목 공정부터 적기 시공 및 완벽 시공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는 등 신고리 1·2호기 시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공동 도급 사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하여 원활한 공사 수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 신규 사업 추진

신고리 1,2호기 건설 수행 이외에 새로 발주 예상되는 신고리 3,4



대림산업(주)는 2004년 11월에 ASME 인증 심사를 통해 NA/NPT/NS STAMP에 대한 재인증을 취득하였다. 1992년 첫 취득 이래 4번째 갱신이다.

호기와 후속 원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건설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당사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이다.

또한 주요 국책 사업 중 하나인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뿐만 아니라 발전소 정비 공사 및 원전 수명 연장 사업에도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대림은 이러한 원자력 공사 수행을 기반으로 기술력 및 시공 능력을 격상하여 향후 원자력 업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자력 시공 업체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원전 시장도 적극 개척해 나갈 것이다.

맺음말

플랜트 건설로 쌓아 올린 명성과 원전 건설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의 안정적인 클린 에너지 공급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대림은 앞으로도 껍질을 깨고 나오는 각고의 노력으로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국민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구자적 기업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대림인은 이러한 자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고객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모든 원자력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